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 개발	서수정
	시지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오성훈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이여경
	역사문화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민경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엄운진
수시 과제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여혜진
수탁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조상규
	미래정착환경 대응을 위한 건축 분야 통계개선 방안 연구	조상규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연구	신치후

기본과제

❶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 개발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시행에 따라 2014년 공모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 사업이 시행 중이고, 2015년에는 일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지원은 지역의 자생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지역기업이나 주민의 자본,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촉매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 주도, 민간투자여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2015년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와 융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지원 제도에 따라 선도지역 중 천안의 동남구청사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복합개발에 기금출자사업이 결정되었다. 이처럼 현재 도시재생기금은 도시경제 기반형에 한해서 운용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린재생형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린재생사업의 경우 쇠퇴한 구도심 및 노후불량 지역의 골목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정비, 공원·공공공간, 유흥시설 리노베이션 등 공공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사업, 리테일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2017년부터는 근린재생사업에도 다양한 민간주체 참여를 위한 기금지원 정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금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프로그램, 금융지원에 따른 사업모델 등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재생사업에서 다양한 민간주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민관협력 연계'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근린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금지원 수요파악을 통해 기금

지원에 의한 사업화 모델(민관협력형, 주민주도사업, 민간 출자형 사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생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수정

② 시지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관을 향유하는 인간의 시지각 특성이 원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가로에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경관을 조성하기보다는 거시적인 도시구조에서의 조망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개별 관찰자들이 연속적인 시지각적 경험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시경관을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경관의 경험자, 즉 관찰자이다. 따라서 관찰자의 시점을 위주로 도시의 여러 계획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경관계획의 핵심적이며, 이런 내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증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주요 청사까지 이르는 진입가도의 포장과 장식을 주로 하는 경관계획,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경관축 계획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관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지점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시공간의 전반적인 매력을 제고함으로써 이른바 도시의 경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가로의 관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관에 대한 고려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경관계획의 경우 관찰자의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도시공간과 가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도시경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찰자들의 시점에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계획요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오성훈

③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서 주민 주도적인 경관관리를 유도·지원하기 위해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약속하고 지켜나감으로써 경관을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이다. 이러한 주민 간 약속체결 절차의 타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관법」에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인가받도록 하였다. 또한 경관협정 체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관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제도 활성화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왔다.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관협정과 공공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관협정사업'의 형식으로 공공 주도적 경관협정을 추진하여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4년 경관협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3개 지자체에 경관협정 체결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실제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사례는 1곳에 불과하였다.

이에 2016년에는 경관협정 체결을 전제로 경관협정 체결지 또는 체결예정지의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현재까지 경관협정이 체결된 사례는 28곳에 불과하다. 특히 주민이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관협정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경관협정 체결 사례에 대한 실태분석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경관협정 체결 및 공공지원방식의 한계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경관협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공공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경관협정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운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여경

4 역사문화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4년 고도(古都)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고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4개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의 지구(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승인하였다. 고도지구의 지정은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도별로 2012년부터 매년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고풍스러운 경관 조성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고도보존육성 정책과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개 고도의 지정지구 내 건축물 현황과 행위허가 신청현황 및 심의 결과, 고도 지구가 지정된 2012년 전·후의 고도 지정지구 내 변화 등을 조사·분석하여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고도별 디자인 관리 대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관리 방안과 민·관 협력에 의한 활성화 방안 등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고도별 특성에 맞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민경

5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를 주관부처로 행복도시 내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시설 중 하나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건축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만들어지는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 박물관으로 관련 분야의 콘텐츠 수집을 기획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건축기록물 수집·관리와 관련하여 업무 매뉴얼 및 지침 등 실무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국립), 국립현대미술관(국립), 서울역사박물관(시립), 김중업박물관(시립), 목천문화재단(민간) 등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건축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출판 등의 작업도 활발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도 2007년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건축기록물 수집·관리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2008),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2009),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연구'(2009),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2016) 등의 선행연구 및 사업 등이 진행된 바 있으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수집·관리 업무단계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건축기록물 수집·관리 경험이 있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건축기록물의 수집·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건축기록물 수집·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업무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엄윤진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제품 이용단계에서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산품 구입 시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은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가치재임에도 매매계약 시 상세한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단계에서도 소유주 등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우 간략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이용정보 구축 및 제공의 목적이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관할 행정청의 건축물 관리 목적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공의 건축물 점검 목적에 제한되어 있다. 건축물 이용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과 녹색건축물 등 특정 성능의 건축물에 한정되고 있다. 개인의 건축물 유지·관리 부담이 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외된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이용정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이용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한 건축정책 과제로 삼고 건축물 유형별 유지·관리 편의성을 개선하는 건축물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하며, 건축물 이용정보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건축물사용설명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시범사업 운영, 중앙기 과제 등 정책과제의 기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이용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과제기도 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①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과 국민 복리향상을 위해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할당된 건물 부문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할당된 총 48만 톤의 건물 부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계획 여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제주도는 특수한 입지와 기후 특성을 고려한 녹색건축 설계 및 시공 기준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급증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녹색건축 적용 방안,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한 녹색건축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공간환경 측면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42%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대책, 제주도 고유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녹색건축 설비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관련 정책과 연계한 녹색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주도의 정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비전을 '고치 짓는 포리롱 제주 -자연과 공존하는 제주 녹색건축-'으로 설정하였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녹색건축을 조성함으로써 푸른 제주를 만들자는 의미를 지닌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고, 정책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3개 핵심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정'과 '공존'을 핵

심가치로 추구하며,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물 부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상규

2 미래정책환경 대응을 위한 건축 분야 통계개선 방안 연구

건축과 관련된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 수요 감소와 기존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 관리 및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증가하였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기준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리모델링과 같은 건설 이후(post-construction) 단계의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해진다. 건축 분야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온나라부동산 정보포털 사이트)',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지도서비스(V-World)', '국가공간정보유통 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 정보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체계에서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생산은 보유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 관련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과 수집되는 데이터의 내용, 해외 건축분야 통계와 정책정보 활용 사례, 유관 분야 통계현황 조사와 건축 분야 통계수요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통계 항목과 융·복합 통계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건축 분야의 증거기반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 및 통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규

3 2016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연구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한옥진흥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옥문화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옥 진흥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옥홍보 행사를 기획·운영하여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한옥을 발굴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미래지향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옥계획', '한옥준공', '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옥공모전 운영·심사위원회는 특히 계획 부문의 주제를 '도심 속 한옥'으로 정하고, 참가자들에게 도심에 입지하는 한옥이 추구해야 할 현실적인 모습을 치열하게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는 미래의 건축 인재들에게 우리 한옥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옥설계 캠프는 열흘간의 단기간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주)한옥과문화(지용한옥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진행하였다.

일반인들을 위한 한옥 교육 프로그램인 '2016 한옥강연 및 현장답사'는 올해 처음 기획한 것으로, 한옥사진 찍는 법 등의 교양 강좌와 도심 속 한옥마을 답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한옥홍보 행사는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후 한옥공모전 등의 기획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홍보수단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치후



2016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월 5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를 주제로 2016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최근 20~30대 건축 전공자들은 저성장 사회로의 전환,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소통 매체의 등장 등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활동 영역을 새롭게 넓혀 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젊은 건축인들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목적에 걸맞게 포럼에는 현재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 중인 젊은 건축인들과 기성 건축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현재 건축계의 젊은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포럼은 1개의 주제발표와 2개의 종합토의로 구성되었다. 먼저 김명규 대표(마실와이드)가 주제발표 '건축콘텐츠와 비즈니스'를 통해 건축콘텐츠란 무엇이며, 건축콘텐츠를 유통하는 스타트업 업체를 창업한 배경과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이후 엄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진행으로 '건축콘텐츠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콘텐츠의 발견과 시도'(1부), '건축 외연의 확장: 건축콘텐츠는 앞으로 어떤 분야와 융합될 수 있을까?'(2부)를 주제로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부에서는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규 대표, 김형래 대표(에이플래폼), 신동윤 대표(아키텍트 대표), 한기준 대표(DIGIT 대표)가 창업 시도의 배경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이치훈 대표(SoA 건축), 정효진 팀장(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기획운영팀), 김성아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기훈 사무관(국토교통부)과 함께 건축과 타 분야의 융합 사례, 건축과 관련된 사업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젊은 건축인과 기성 건축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시대의 큰 변화 속에서 건축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건축계의 이슈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정소윤

CPTED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CPTED 세미나를 2016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12일, 9월 23일 연구소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올해 1월 1일 설립된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가 지난 5월 10일 '학교시설에 적용한 CPTED 전략과 사례' 세미나를 연 이후 CPTED에 관한 이해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CPTED에 관심 있는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이어간 것이다.

7월 7일에 개최된 CPTED 세미나는 'CPTED에서의 색과 조명'이라는 주제 아래 박수진 박사(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이 강연을 맡아주었다. 박수진 박사는 CPTED 기법에 적용 가능한 색채 활용방안을 설명하며, 시인성과 주목성 측면에서 색의 기능적 활용을 강조하였다.

7월 28일 'CPTED를 위한 조명설계 가이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병우 실장(영공조명)의 강연이 있었다. 전병우 실장은 연색성, 온도, 색온도 등 빛의 속성과 다른 CPTED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조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기본 가이드를 설명하였다.

8월 12일 'CPTED와 건축사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고정림 수석연구원(이에이엔테크놀로지)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범행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토털 디자인 특화기법과 CPTED 부문 연계 활용이 가능한 최신 IT 활용기술 개발 및 연구내용이 소개되었다.

9월 23일에는 '범죄예방디자인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 아래, 강석진 교수(경상대학교 건축학과)의 강연이 있었다. 강석진 교수는 국내외 CPTED 관련 정책과 사업 사례와 시사점, CPTED 적용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들 세미나는 CPTED 구성 요소의 실무적 활용부터 실제 사업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해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는 CPTED에 대한 지식 공유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CPTED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류수연

2016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16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uri 마을재생 세미나는 재생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특강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다.

4월 14일 열린 1차 세미나에서는 창신송인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 신중진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군산 선도지역 실무담당자 최성운 계장(군산시청 도시계획과)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경험과 이슈 그리고 시사점'을 주제로 성과와 과제 등을 공유하였다.



제2차 세미나는 8월 17일 열렸으며, 신촌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이제선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모시고 '젊음과 활력이 살아있는 컬처밸리(Culture-Valley), 신촌의 마을재생 사례와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선 교수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조직화와 주민역량 강화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계획안을 위주로 그 간의 경험을 설명하였다.

9월 7일에 있었던 3차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역발전위원회 새뜰마을사업지역 총괄코디네이터 8인과 함께 '새뜰마을사업의 휴먼케어 우수사례 및 유형별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8일 제4차 세미나는 군산시 영화동 이당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군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군산대학교 학생 및 마을재생과 군산에 관심 있는 지역민, 군산시 도시재생 사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마을재생의 출발점, 아카이빙'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박성진 교수(군산대학교 건축학과)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요한 대표(블랭크), 박동광 이사(성북신나), 전미정 대표(기억발전소), 정수현 대표(엔스페이스)가 발제를 통해 장소 아카이빙의 새로운 방식과 사례, 가능성 등을 소개하였다. 이후 발제자들과 참석자가 모두 참여하는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참여주체들이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네트워크 구축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주선, 변은주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를 2016년 8월 24일, 9월 6일에 걸쳐 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연구소는 2014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연구진과 공공건축에 관심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진행하고 있다.

8월 24일에 개최한 세미나는 '공공건축(도서관) 조성 과정 및 개선사항 논의'를 주제로 최재원 소장(오즈건축사사무소)의 강연으로 진행하였다. 공공도서관 사례(구산동 도서관마을, 청라국제도서관)를 중심으로 건립 배경, 설계 조건에 따른 계획의 주안점,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및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 시 확인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9월 6일에 개최한 세미나는 '공공건축(전시시설) 조성 관련 사례 소개 및 개선사항 논의'를 주제로 김용미 대표(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강연으로 진행하였다. 우수 사례(한성백제박물관, 시화호 조력발전 홍보관)를 참고로 사업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 방식, 사업 기간 및 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와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및 업무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현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TWN & PuRE- Net Oslo 2016 참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과 염철호 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TWN & PuRE-Net Oslo 2016'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TWN(The Workplace Network)은 전 세계 19개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기관 정책 네트워크로, 소속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각 국가의 공공자산 및 공공건축물의 관리와 관련된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기관의 정책적 노력 및 성과 등의 공유를 위해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TWN의 정식 멤버로서 공식 초청을 받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초청자 세션에서 'auri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유경 부연구위원 그리고 고영호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주었으며, 발표를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등 연구소의 공공건축 관련 연구와 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등 공공건축과 관련된 정책 현황,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조달청 등 공공건축 관련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여 국내 공공건축 조성과 관리 현황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였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참석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공건축과 관련한 연구소의 역할과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정책 현황을 알리는 물론, 각국의 공공자산 관련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공통적인 쟁점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연구소가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도 공공건축을 비롯한 건축·도시 분야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기관 간 성과와 지식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영호, 백혜인